

국립국어원 2024-01-11

발간등록번호
--------

11-1371028-001004-01
----------------------

#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연구 책임자: 한 용 운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24-01-1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1004-01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4년 3월 5일 ~ 2024년 8월 31일

2024년 8월 31일

연구 책임자: 한용운(언어정보개발원)

연구 기관: 언어정보개발원

연구 책임자: 한용운

공동 연구원: 박상훈, 한수미

연구 보조원: 강지우, 최수혜, 한지민

<요약>

##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이 연구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남북에서 차이 나는 외국 고유명을 언어 자료로 구축하여 향후 남북 국민의 원활한 소통과 남북 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사업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과업은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작업이다. 신규로 구축되는 남북 고유명에는 ‘인명(실존·비실존 인물 포함), 지명(국가명, 자연 지명, 행정 지명, 문화 지명 등 포함), 기관·기구명, 유물·유적명, 사건명, 종족·민족명, 언어명, 음식명 등’이 망라되어 있다.

두 번째 과업은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1,000여 개)’를 보완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남북 외국 고유명 1,000여 개’를 국립국어원의 자료 구축 체계에 맞게 수정 및 재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세 번째 과업은 본 사업의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온용어)’에 맞추어 항목별로 입력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과업 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업하였다.

###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의 구축 원칙

- ①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용어와 중복되지 않는 용어를 선정한다.
- ② 신규 용어는 ‘<조선말대사전>(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 ‘<조선대백과사전>(2001)’ 등의 사전이나 신문·서적 등의 공신력 있는 출판·간행물에서 선정한다.
- ③ 남한 용어의 정의문은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말샘>에 없는 용어일 경우에는 전문 서적 등을 참고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 ④ 북한 용어의 정의문은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조선말대사전>(2017)의 정의문을 최대한 반영하되,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수정한다. 북한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북한 서적 등을 참조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 ⑤ 용어의 ‘영역 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따라 분류한다.

## 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구축 원칙

- ① 남한 용어와 북한 대응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어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기구축 자료의 '남한 용어'는 '고비'인데 북한 대응어가 '고비사막'일 경우, '고비'를 '고비 사막'으로 수정한다.(남한에서 '고비 사막'으로 널리 쓰이고 있음.) 또한 기구축 자료의 용어가 잘못 제시된 경우(오타, 표기법 오류 등)에도 해당 용어를 수정한다.
- ② '원어'나 '표기' 등에서 기구축한 자료의 오류가 있을 경우, 남한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과 '한국어문규정(<https://korean.go.kr/kornorms/main/main.do>)'에 맞추어 수정하고, 북한 용어는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맞추어 수정한다. 예) 고쉐병(Gaucher病)→ 고세병(Gaucher病)
- ③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개별 용어에 대한 남북 사전의 '정의문'을 제시한다. 용어의 '정의문'은 '열(column)'을 새롭게 추가하여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등재된 표제어에 한해 북한 정의문을 제시한다. 북한 정의문은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제시한다.
- ④ 북한 용어의 '표기'나 '원어' 등이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차이가 있을 경우,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맞추어 수정한다. 그 이유는 '<거울2.0>'이 가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이다.

위의 1)과 2)를 원칙으로 하여 작업한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온용어 시스템'에 맞추어 입력하였다.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사업에서 작업한 결과를 통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작업 결과 통계

과업	목표량	기구축 용어 수	최종 구축 용어 수	비율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2,000여 개)	2,000개	0개	2,006개	100.3%
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 (1,000여 개)	1,000개	1,008개	1,008개	100.8%
3) 온용어 시스템 입력	3,000개	-	2,997개	99.9%

주제어: 북한어, 미등재어, 외국 고유명

주요어: 북한어, 미등재어, 외국 고유명, 인명, 지명

# 차 례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 1
- 1.2. 사업의 범위 ..... 1
- 1.3. 기대 효과 및 후속 연구 제안 ..... 2

## 제2장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작업 대상 및 방식

- 2.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작업 ..... 5
- 2.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작업 ..... 9
- 2.3. 국립국어원 ‘온용어(용어 구축 시스템)’에 결과물 반영 ..... 12

## 제3장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작업 결과물

- 통계 ..... 16

- <참고 문헌> ..... 20



# 제 1 장

## 사업 개요



## 1.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업 목적

이 사업은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남북에서 차이 나는 외국 고유명을 언어 자료로 구축하여, 향후 남북 국민의 원활한 소통과 남북 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 2) 사업 필요성

남북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용어 차이로 인한 남북 간 오해를 덜고 언어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외국 고유명에 대한 남북 언어 비교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2. 사업의 범위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정비·구축한 남북 고유명의 총개수는 3,014개이다.

###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2,000여 개

첫 번째 과업은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신규로 구축될 남북 고유명에는 ‘인명(실존·비실존 인물 포함), 지명(국가명, 자연 지명, 행정 지명, 문화 지명 등 포함), 기관·기구명, 유물·유적명, 사건명, 종족·민족명, 언어명, 음식명 등’이 망라되어 있다. 신규로 발굴한 용어는 항목별로 ‘분야 분류’, ‘용어(북한어)’, ‘관련 용어(남한어)’, ‘원어’, ‘어종’, ‘정의문’을 제시한다.

## 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 1,000여 개

두 번째 과업은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작업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남북 외국 고유명 1,000여 개(국립국어원(2021))'를 국어원 시스템(온용어)에 맞게 재가공하여 언어 자료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재가공 작업 내용에는 용어별로 '분야 분류', '북한 용어 제시', '관련 용어(남한어) 제시', '원어 제시', '어종 제시', '정의문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국립국어원 '온용어(용어 구축 시스템)'에 결과물 반영

세 번째 과업은 1)과 2)의 작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온용어)'에 항목별로 입력하는 작업이다.

# 1.3. 기대 효과 및 후속 연구 제안

사업 결과물의 기대 효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고유명에 대한 남북의 차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남북 국민의 상호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 들어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한 올림픽 경기, 아시안 게임 등의 각종 국제 대회도 대규모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동일한 인물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남북 국민의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널리 쓰이는 외국 고유명을 비교·참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본 연구 결과물은 남북 상호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물은 기구축된 '남북 고유명 대응쌍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구축된 '남북 고유명 대응쌍 자료'에는 대응쌍 연결이 잘못된 예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서는 기구축된 '남북 고유명 대응쌍'을 최신의 남북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이렇게 작업한 결과물은 '국립국어원 구축 북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우리말샘>의 북한어 표제어를 확충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사업을 간략히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샘>의 표제어로 등재할 가치가 있는 북한 어휘를 추가적으로 발굴·등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초 어휘와 21세기 이후에 발생된 신어를 선별하여 <우리말샘>의 표제어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샘>은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적 사전이다. 북한어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도 일반 국민은 <우리말샘>을 주로 이용하는데, 찾고자 하는 북한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국민은 해당 어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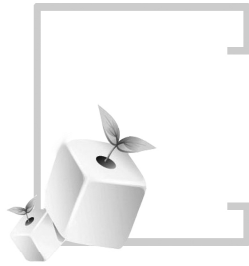
2006년에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의 총 표제어 수는 352,943개인데, 이를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비교했을 때, ‘<조선말대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138,472개에 달한다.<sup>1)</sup> 이는 <조선말대사전> 전체 표제어 대비 39%에 이르는 수치로, 남과 북의 사전 표제어를 비교 대상으로 할 경우, 남한 사람들은 39% 정도의 북측 낱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간행할 당시의 북한어 표제어 수는 72,063개였는데, 현재(2024년 8월 24일 기준)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단어, 구, 관용구, 속담 포함) 수는 69,264개이다<sup>2)</sup>. 1999년에 비해 사전의 북한어 표제어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북한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남북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말샘>의 북한어 표제어를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 및 북한어 정보를 전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 표제어와 그 풀이는 1992년에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와 풀이에 기초한 것이 많다. 따라서 북한의 최신 사전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말샘>의 북한어 표제어(일반어, 전문용어, 관용구, 속담 등)와 그 풀이를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1) ‘<조선말대사전>(2006)의 총 표제어 수’와 ‘<조선말대사전>(2006)에만 수록된 표제어 수’는 한용운(2015, p. 62.)를 참조하였다.

2)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북한어 표제어 수는 이운영(2002, p. 42.)를 참조하였고, <우리말샘>(웹)의 북한어 표제어 수는 ‘자세히 찾기’를 이용해 산출한 수치이다. 현재 웹사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북한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북한어 정보를 찾으려면 <우리말샘>을 주로 참조하게 된다. 현재 표제어 검색 시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우리말샘>(웹)은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면 국민이 정보를 참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 제 2 장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작업 대상 및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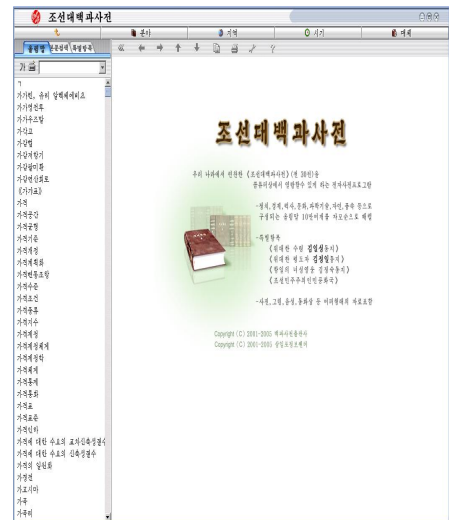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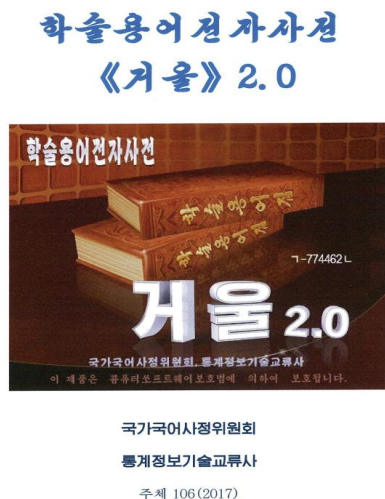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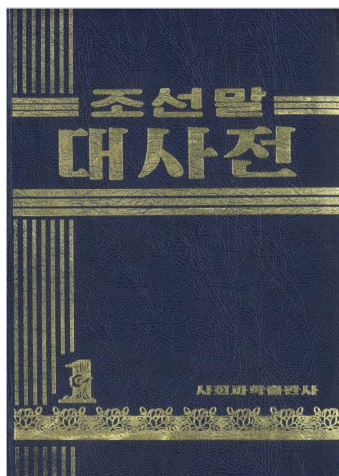
## 2.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작업

신규로 구축할 외국 고유명에는 ‘인명(실존·비실존 인물 포함), 지명(국가명, 자연 지명, 행정 지명, 문화 지명 등 포함), 기관·기구명, 유물·유적명, 사건명, 종족·민족명, 언어명, 음식명 등’이 망라되어 있다. 구축할 대상 용어가 북한의 고유명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외국 고유명을 신규로 발굴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 □ 북한 고유명 발굴 참고 자료

- ① 사회과학출판사(2017),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 ② 백과사전출판사(2001), 『조선대백과사전』(CD-ROM판)
- ③ 김기근 외(2012), 『지리편람(중학생용)』, 교육도서출판사.
- ④ 『로동신문』 (2022~2023년).
- ⑤ 국가국어사정위원회/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전자사전).

<참고>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 <조선대백과사전>(2001) 사진



한편,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와 ‘온용어’에 반영된 ‘남북 정보통신기술용어 비교 자료(2022)’ 1,579건, ‘남북 전문 용어(2015-2019)’ 8,220건은 고유명 신규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1.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2,000여 개)’ 구축 방식

신규로 발굴한 외국 고유명에는 항목별로 ‘대분류’, ‘중분류’, ‘용어(북한어)’, ‘관련 용어(남한어)’, ‘원어’, ‘어종’, ‘정의문’, ‘정의문 출처’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원칙’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원칙

- ①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용어와 중복되지 않는 용어를 선정한다.
- ② 신규 용어는 ‘<조선말대사전>(2017)’, ‘<조선대백과사전>(2001)’ 등의 사전이나 신문·교과서 등의 공신력 있는 출판·간행물에서 선정한다.
- ③ 북한 용어의 정의문은 ‘<조선말대사전>(2017)’과 ‘<조선대백과사전>(2001)’의 정의문을 최대한 반영하되,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수정한다. 북한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북한 참고 서적 등을 참조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 ④ 북한 용어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가 <우리말샘>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말샘>에 없는 경우에는 전문 서적 등을 참고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 ⑤ 용어의 ‘영역 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따라 분류한다.

### 2.1.2.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2,000여 개)’ 작업의 내용

새로 발굴한 남북 외국 고유명 자료의 엑셀 파일 형식과 작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엑셀 파일 형식

연번	대분류	중분류	용어(북한어)	관련 용어(남한어)	원어	어종	정의문	용어 출처	정의문 출처
1183	HF	HF08	헤브라이어	히브리어	←Hebrew語	혼종어	함·셈 어족 서북셈 어파의 가나안 어군에 속한 언어. 이스라엘의 공용어로, 세계 각지의 유대인 사회에서도 쓰인다.	조선말대사전(2017)	우리말샘
1186	HH	HH09	홀멘콜렌경기대회	홀멘콜렌 스키 페스티벌	Holmenkollen競技大會	혼종어	노르웨이의 오슬로 교외에서 열리는 전통 스키 점프 대회. 세계 최대 규모이다.	조선말대사전(2017)	조선말대사전(2017)
1188	HF	HF01	흐라차니성	프라하성	Hradčany城	혼종어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성. 14세기부터 건설되었으며 다양한 건축 양식이 섞여 있다.	조선말대사전(2017)	조선말대사전(2017)
1206	HF	HF01	콩베뉴조약	콩피예뉴 조약	Compiègne條約	혼종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과 독일 간에 체결된 휴전 협정. 1918년에 서명되었다.	로동신문	직접 입력
1435	기타		헷센	헤센주	Hessen	외래어	독일 중부에 있는 주. 농업·공업의 중심지이다. 주도(州都)는 비스바덴(Wiesbaden), 면적은 2만 1111㎢.	로동신문	우리말샘
1436	기타		호놀룰루	호놀룰루	Honolulu	외래어	미국 오아후섬 동남쪽 기슭에 있는 항구 도시. 항공 교통 요충지이며, 파인애플·설탕 따위를 실어 낸다. 하와이주의 주도(州都)이다.	로동신문	우리말샘
1437	기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	Fukuoka[福岡]縣	혼종어	일본 규슈(九州) 북부에 있는 현. 쌀, 보리, 석탄, 해산물 따위가 많이 목축을 한다. 규슈 공업 지대에 속하며 철강업, 화학 공업, 요업 따위가 발달하였다. 현청 소재지는 후쿠오카, 면적은 4,952㎢.	로동신문	우리말샘
1438	HG	HG11	히토쓰바시대학	히토쓰바시 대학	Hitotsubashi[一橋]大學	혼종어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립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다.	로동신문	직접 입력
1440	기타		라가슈	라가시	Lagash	외래어	메소포타미아 최남부에 있던 고대 수메르의 도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위치하며, 초기 왕조 시대의 풍부한 자료와 구대어 시대의 지하 분묘가 발견되었다.	로동신문	우리말샘
1456	OC	OC99	로마구락부	로마스클럽	Roma俱樂部	혼종어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르는 인류의 위기를 분석하여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민간단체. 1968 년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로마에 모여 결성하였다.	조선대백과사전	우리말샘
1457	HF	HF01	릿든조사단	리턴스조사단, 리턴스조사단	Lytton調查團	혼종어	만주 사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이 영국의 리턴을 위원장으로 하여 파견한 조사 위원회. 일본과 중국, 만주 지역을 조사하여 만주 사변이 일본의 침략이라고 규정하되 일본의 만주에 대한 권익을 인정하고 중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시하는 내용의 리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조선대백과사전	우리말샘
1458	HG	HG01	링가자티협정	링가자티협정	Linggadjati協定	혼종어	제이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자바섬 서부의 치르본 근처 링가자티 언덕에서 맺은 협정. 협정의 주요 내용은 네덜란드가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조선대백과사전	우리말샘
1463	HF	HF01	부스타만테법전	부스타만테법전	Bustamante法典	혼종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조약에 따라 채택된 국제 민법, 국제 상법, 국제 형법 및 국제 소송법에 관한 통일 법전. 쿠바의 국제법 학자인 부스타만테(Bustamante y Sirvén, A. S. de)가 기초한 매우 상세한 법전으로, 1928년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6회 범미(汎美)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조선대백과사전	우리말샘
1469	HF	HF01	빅르딩조약	베르딩조약	Verdun條約	혼종어	프랑스 왕국의 루트비히 일세가 죽은 뒤 843년에 그 왕국의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상속하기로 한 조약. 메이르선 조약과 더불어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삼국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조선대백과사전	우리말샘

신규 용어에는 ‘대분류’, ‘중분류’, ‘용어(북한어)’, ‘관련 용어(남한어)’, ‘원어’, ‘어종’, ‘정의문’, ‘용어 출처’, ‘정의문 출처’ 등의 항목을 제시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 (2) 세부 작업 내용 및 방식

- ① <대분류 및 중분류>: ‘대분류’와 ‘중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맞게 분류하였다.
- ② 용어(북한어): 북한 용어는 ‘<조선말대사전>(2017)’과 ‘<조선대백과사전>(2001)’ 등의 북한 사전과 전문 서적들을 참조하여 용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③ 관련 용어(남한어): 북한 용어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를 제시하였다.
- ④ 원어: 북한 용어가 관련 용어(남한어)와 동일하고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우리말샘>의 원어를 따르고, <우리말샘>에 해당 용어가 없을 경우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원어를 제시하였다.
- ⑤ 어종: ‘외래어’와 ‘혼종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⑥ 정의문: ‘<조선말대사전>(2017)’과 ‘<조선대백과사전>(2001)’에서 발굴한 용어는 해당 사전에 있는 뜻풀이를 남한 표기법에 맞춰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단, 관련 용어(남한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제시하였다. 그 외의 자료에서 발굴한 용어는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구글 검색 등을 참조하여 정의문을 작성하였다.
- ⑦ 용어 출처: 신규 발굴한 북한 용어의 출처를 제시하였다.
- ⑧ 정의문 출처: 신규 발굴한 북한 용어의 정의문의 출처를 제시하였다.

### 2.1.3.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방식

신규로 발굴한 외국 고유명에는 항목별로 ‘분야 분류’, ‘용어(북한어) 제시’, ‘관련 용어(남한어) 제시’, ‘원어 제시’, ‘어종 제시’, ‘정의문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원칙’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원칙

- ①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용어와 중복되지 않는 용어를 선정한다.
- ② 신규 용어는 ‘<조선말대사전>(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 ‘<조선대백과사전>(2001) 등의 사전이나 신문·서적 등의 공신력 있는 출판·간행물에서 선정한다.
- ③ 남한 용어의 정의문은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말샘>에 없는 용어일 경우에는 전문 서적 등을 참고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 ④ 북한 용어의 정의문은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조선말대사전>(2017)의 정의문을 최대한 반영하되,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수정한다. 북한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북한 서적 등을 참조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 ⑤ 용어의 ‘영역 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따라 분류한다.

## 2.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작업

이 작업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기구축 용어(1,000여 개)를 항목별로 재검토하고, 아울러 남한의 ‘정의문’과 북한의 ‘정의문’을 추가적으로 집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 2.2.1.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구축 원칙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의 구축 원칙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원칙

- ① 남한 용어와 북한 대응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어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기구축 자료의 ‘남한 용어’는 ‘고비’인데 북한 대응어가 ‘고비사막’일 경우, ‘고비’를 ‘고비 사막’으로 수정한다.(남한에서 ‘고비 사막’도 널리 쓰이고 있음.) 또한 기구축 자료의 용어가 잘못 제시된 경우(오타, 표기법 오류 등)에도 해당 용어를 수정한다.
- ② ‘원어’나 ‘표기’ 등에서 기구축한 자료의 오류가 있을 경우, 남한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과 ‘한국어문규정(<https://korean.go.kr/kornorms/main/main.do>)’에 맞추어 수정하고, 북한 용어는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맞추어 수정한다.  
예) 고쉐병(Gaucher病)→ 고세병(Gaucher病)
- ③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개별 용어에 대한 남북 사전의 ‘정의문’을 제시한다. 용어의 ‘정의문’은 ‘열(column)’을 새롭게 추가하여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등재된 표제어에 한해 북한 정의문을 제시한다. 북한 정의문은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제시한다.
- ④ 북한 용어의 ‘표기’나 ‘원어’ 등이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차이가 있을 경우,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맞추어 수정한다. 그 이유는 ‘<거울2.0>’이 가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이다.

## 2.2.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작업의 내용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기구축 용어의 엑셀 파일 형식과 작업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립국어원 제공 기구축 엑셀 파일 형식

연	유형	분야	남한 용어	남한 용어 원어	남한 용어 참고어	정의문	북한 용어	북한 용어 원어	비고	출처
16	인명	물리	거머	Germer, Lester Halbert	데이비슨·거머의 실험	미국의 물리학자(1896~1971), 미국의 물리학자. 클린턴 데이비슨과 함께 물질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증명했는데, 이는 전자 현미경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저머	Germer	<북, 거울> 데이비슨-저머의 실험 [~實驗 Davisson-Germr's experiment	2007~2008년 구축 남북전문용어
17	인명	물리	게를라흐	Gerlach, Walther	슈테른-게를라흐 실험	<우리말샘> 발터 게를라흐, 독일의 물리학자(1889~1979). 1921년에 슈테른(Stern, O.)과의 실험을 통해 원자 구조론에 공헌하였다.	게를라흐	Gerlach		2007~2008년 구축 남북전문용어
18	인명	화학	게이뤼삭	GayLussac, Joseph Louis	게이뤼삭산, 게이뤼삭의 법칙, 게이뤼삭의 제이 법칙, 게이뤼삭의 제일 법칙, 게이뤼삭탑	프랑스의 화학자·물리학자(1778~1850).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발견하였으며, 황산 제조법을 개량하고, '게이뤼삭탑'을 발명하였다.	개 뽀싸고	Gay-Lussac	<북, 거울>	2007~2008년 구축 남북전문용어, 조선말대사전 1992년 초판
19	인명	정치	고르바초프	Gorbachev, Mikhail Sergeevich		소련 및 러시아의 정치인(1931~2022).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대 서기장,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과 최고회의 주석을 거쳐 소련의 최후이자 마지막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고르바초브		<<조대>> 및 NK학술사전에서 검색되지 않음.	2007~2008년 구축 남북전문용어
20	인명	문학	고리키	Gorkii Maksim	고리키 모스크바 예술 극장	<우리말샘> 막심 고리키, 제정 러시아의 작가(1868~1936).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다.	고리끼	Gorky, Maxim		2007~2008년 구축 남북전문용어
21	지명	사막	고비사막	Gobi 沙漠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	<우리말샘> 몽골고원 중부에 있는 사막. <북, 거울>고비사막[Gobi《영》沙漠] 몽골의 남부와 중국의 북서 지역을 포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의 하나. 몽골말로 <거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는 고비사막의 여름은 몹시 덥고(최고 기온 40℃) 겨울은 몹시 추우며(최저 기온 -40℃) 연평균 강수량은 50~200mm에 지나지 않	고비	Gobi		중학교 2학년 북한지리 교과서

국립국어원의 ‘기구축 용어 작업 파일’의 ‘열(column)’ 항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 (2) 세부 작업 내용 및 방식

- ① <유형 및 분야 설정>: ‘용어의 유형 및 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맞게 분류하였다.
- ② 남한 용어: 동형어가 존재하는 남한 용어는 ‘남한 용어 참고어’를 확인하여 대상 용어를 검증하였다.



- ③ 남한 용어 원어: 남한 용어의 원어는 <우리말샘>의 원어를 따르되, <우리말샘>에 해당 용어가 없을 경우,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원어를 제시하였다.
- ④ 정의문 작성: 남한 용어의 정의문은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북한 용어의 정의문은 북한 사전, 특히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의 정의문을 간략히 수정하여 제시하였고, 그 표기법은 남한 표기법에 따랐다.
- ⑤ 북한 용어: 북한 용어는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조선말대사전>(2017)’ 등의 북한 사전과 전문 서적들을 참조하여 용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⑥ 비고란 작성: 비고란에는 ‘북한어 대상 용어’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작업 파일’은 남한어를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여서, 작업 파일에 남한 용어는 제시되어 있지만 북한 용어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본 작업에서는 북한 사전(‘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조선말대사전>(2017)’)에 등재된 용어는 북한어와 그 원어 등을 찾아서 제시하되, 북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는 대응 북한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작업 결과, 남한 용어의 대응 북한어가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남한 용어의 대응 북한어를 제시하지 않은 용어(16개)**

노보로시스크, 디오클레스, 로베스피에르, 링컨, 뭄바이, 밀로, 바투, 스탈린, 아메리고 베스푸치, 오페르트, 워싱턴, 첸나이, 카롤루스, 카마, 코르닐로프, 테일러

또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작업 파일’에는 ‘중복 제시된 용어’가 1개(예: 피타고라스) 있었는데, 이는 비고란에 ‘중복 용어’로 표시해 두었다.

## 2.3. 국립국어원 ‘온용어(용어 구축 시스템)’에 결과물 반영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작업’과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 작업’이 완료된 이후, 이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온용어 시스템(용어 구축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지침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온용어’ 입력 지침

- ① 북한 용어 a와 a'가 있을 경우 시스템 입력에서 a를 ‘용어’로, a'를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a'는 ‘관련 용어’ 체크박스에서 ‘북한어’를 선택한 후에 a'를 입력한다.
- ② ‘북한 용어 표기’, ‘북한 용어 원어’ 등이 <거울 2.0>과 다를 경우, <거울 2.0>의 것을 입력하고, 출처 또한 <거울 2.0>으로 수정한다.  
(예1)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사전의 올림말 표기 차이>에서는 ‘호드킨병’인데 <거울 2.0>에는 ‘호지킨병’으로 되어 있으면 ‘호지킨병’으로 수정함.  
(예2) 중학교 2학년 지리교과서에서는 ‘고비’인데 <거울 2.0>에서는 ‘고비사막’으로 되어 있으면 ‘고비사막’으로 수정함.
- ③ 남한어에 대응하는 ‘북한어 용어란’이 비어 있을 경우, 남북 전문용어 자료에서 확인하여 기입한다.
- ④ 북한어에 원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남한 사전을 참조하여 그 원어를 기입한다.
- ⑤ 작업 대상이 북한어 고유명사이므로, 원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⑥ 인명의 ‘원어 제시 방식’은 <우리말샘>의 제시 방식에 따른다.
- ⑦ 북한 용어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를 제시할 때, <우리말샘>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한다.  
(예) 북한 용어는 ‘오네가’인데 <우리말샘>에는 ‘오네가호’로 등재되어 있으면, 남한 용어는 ‘오네가호’로 기입한다.
- ⑧ 남한 용어가 <우리말샘>에 없을 때는 북한 용어를 기준으로 그 표기의 일관성을 지킨다. (예) 가스뜨로(북) / 피델 카스트로 루스(남) → 카스트로(남)
- ⑨ 관련 용어를 입력할 때, 남한 용어 A와 A'가 있을 경우, ‘관련 용어’ 체크박스에서 ‘남한어’를 선택하고 A를 기입한다. 이후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다시 관련 용어 체크박스에서 ‘남한어’를 선택하고 A'를 입력한다.

- ⑩ 관련 용어에서 북한 용어의 원어와 남한 용어의 원어가 일치하는 것(예: 산피에트로)과 일치하지 않는 것(예: 성베드로)이 모두 존재할 경우, 관련 용어에 ‘남한어’를 선택하고 두 가지 용어를 모두 기입한다. (예) 싘뻬에뜨로(북)-산피에트로/성베드로(남)

다음으로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 화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용어구축시스템**

시스템 설명서 | 한지민님 | 내 작업 현황 | 내 정보 관리 | 나가기

용어 구축 용어 통계 분석 게시판

### 작업 현황

작업  용어 구축  일지어 구축

과제 2024\_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국립국어원) ▼

분과 집필+검토 분과 ▼

순번	내용	등록일
<>	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 제한 안내(7/18)	2024. 7. 16.
1	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 제한 안내(6/19)	2024. 6. 13.
2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2024. 6. 4.

순번	내용	등록일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 용어 구축 시스템 화면>

‘용어 구축 시스템(온용어) 반영 작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 ① 국립국어원 용어 구축 시스템 접속
- ② 입력 용어 선택
- ③ 북한어 체크박스에 ‘북한어’ 표시
  - ☞ 본 사업의 대상 용어는 북한어이므로, ‘남아메리카’처럼 남북 용어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용어에 ‘북한어’라고 표시하였다.
- ④ 북한어 이형태 입력
  - ☞ 검색용 이형태가 있는 북한어는 이형태란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대상 용어가 북한어 ‘르샤뜰리에’일 경우 통용되는 표기인 ‘르 샤뜰리에’, ‘르 샤텔리’, ‘르 샤텔뜰리

에'를 검색용 이형태로 함께 제시하였다. 이처럼 검색용 이형태가 여럿일 경우는 콤마(.)를 사용하여 구분·입력하였다.

분야분류	국가 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	화학 > 물리화학
	정부 기능 분류 체계 (BRM)	-
	우리말샘 전문 분야	-
용어	〈북한어〉 르'샤틀리에 (용어번호:223637725)	
	〈검색용 이형태〉 르 샤틀리에, 르샤텔리, 르 샤렐플리에	

<'북한어 이형태' 입력 화면>

### ⑤ '원어 정보' 입력

원어가 혼종어일 경우에는 '언어명 선택'을 한 후, 우측의 '+' 버튼을 사용해서 각각의 구성 성분의 원어를 밝혀 제시하였다. 다만, 용어가 '인명', '지명', '국가명'일 경우는 원어 종류를 '안 밝힘'으로 입력하였다.

*원어	<input type="radio"/> 고유어 <input checked="" type="radio"/> 원어 입력(언어명 입력) <input type="radio"/> 원어 정보 없음					
	한자    ▼    南	+	-	▲	▼	☰
	안 밝힘   ▼    America	+	-	▲	▼	☰
*어종	<input type="radio"/> 고유어 <input type="radio"/> 한자어 <input type="radio"/> 외래어 <input checked="" type="radio"/> 혼종어 <input type="radio"/> 어종 없음					

<'원어 정보' 입력 화면>

### ⑥ '정의문' 입력

단어의 정의문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우리말샘>을 검색하여 해당 용어의 뜻풀이를 확인하고, 작업 결과물의 정의문과 <우리말샘>의 정의문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뜻풀이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시스템에서 정의문 출처의 기본값은 '기타'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자료 사진과 같이 시스템에서 그 출처를 찾아 입력하였다. 만약 엑셀 파일의 정의문에 <우리말샘>, <북, 거울> 등의 표시가 없을 경우,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하였다.

<‘정의문’ 입력 화면>

⑦ ‘관련 용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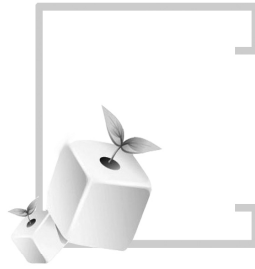
이 작업에서는 대상 북한어와 관련된 남한어를 입력하였다. 관련 용어 선택 창에서 남한어를 선택한 후, ‘찾기’ 버튼을 눌러 관련 용어를 입력하였다. 관련 용어가 기존 용어 목록에 없을 경우, 우측의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관련 용어’ 입력 화면>

⑧ ‘메모란’에 추가 사항 입력: 특별히 언급해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메모란을 활용하였다. 대체로 ‘북한 사전의 정의문’을 제시하거나, ‘남북 용어의 표기가 동일’한 경우 메모란에 ‘남북용어동일’이라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등록일시	분과	작업	항목	의견	등록자
2024.8.3. 18:07:25	집필+검토 분과	집필 완료	정의문	(거울 2.0) 서반구의 남쪽에 있는 대륙의 하나. 서부는 태평양, 동부는 대서양에 임하였으며 남부는 드레이크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남극 대륙과 떨어져 있고 북부는 좁은 파나마 지협에 의하여 북아메리카 대륙과 잇닿아 있다.	한지민 (hanrosa2)
2024.7.24. 09:51:20	집필+검토 분과	집필 완료	관련 용어	남북 용어 동일	한지민 (hanrosa2)

<‘메모란’ 추가 정보 입력 화면>



## 제 3 장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작업  
결과물 통계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작업 결과'를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작업 결과

목표량	2,000개	
작업량	2,006개	
작업달성률	100.3%	
온용어 시스템 입력	2,006개	
<b>분야별 통계</b>		
대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수	비율
기타(지명, 책명, 고유명 일반)	998	49.75%
인문학	724	36.09%
사회과학	104	5.18%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82	4.09%
문화예술체육학	31	1.55%
농림수산식품	24	1.20%
물리학	10	0.50%
생명과학	8	0.40%
수학	6	0.30%
전기/전자	4	0.20%
에너지/자원	3	0.15%
기계	3	0.15%
화학	2	0.10%
환경	2	0.10%
정보/통신	2	0.10%
건설/교통	2	0.10%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	0.05%
<b>합계</b>	<b>2,006</b>	<b>100%</b>

## 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 작업 결과

목표량	1,000개	
작업량	1,008개	
작업달성률	100.8%	
온용어 시스템 입력	991개	
분야별 통계		
대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수	비율
기타(지명, 책명, 고유명 일반)	633	63.87%
인문학	109	11.00%
물리학	80	8.07%
수학	36	3.63%
문화예술체육학	33	3.33%
사회과학	32	3.23%
화학	22	2.22%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16	1.61%
보건의료	12	1.21%
생명과학	7	0.71%
기계	5	0.50%
전기/전자	4	0.40%
인지/감성과학	1	0.10%
농림수산식품	1	0.10%
합계	991	100%



### 3. 작업 결과 통계

#### □ 작업 결과 전체 통계

목표량	3,000개	
작업량	3,014개	
작업달성률	100.5%	
온용어 시스템 입력	2,997개	
<b>분야별 통계</b>		
<b>대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b>	<b>개수</b>	<b>비율</b>
기타	1,631	54.42%
인문학	833	27.79%
사회과학	136	4.54%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98	3.27%
물리학	90	3.00%
문화예술체육학	64	2.14%
수학	42	1.40%
농림수산식품	25	0.83%
화학	24	0.80%
생명과학	15	0.50%
보건의료	12	0.40%
전기/전자	8	0.27%
기계	8	0.27%
에너지/자원	3	0.10%
환경	2	0.07%
정보/통신	2	0.07%
건설/교통	2	0.07%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	0.03%
인지/감성과학	1	0.03%
<b>합계</b>	<b>2,997</b>	<b>100%</b>

## <참고 문헌>

### <논저류>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원(1988/2018), 『한국 어문 규정집』.
- 국립국어원(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8),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해설』.
-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기근 외(2012), 『지리편람(중학생용)』, 교육도서출판사.
- 김민수(2003), 「남북의 언어통합과 공용어」, 『남북한 어문 규범과 그 통일방안』, 국학자료원, pp.5-21.
- 김선철(2009),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2009년 남북 언어 학술 대회 논문집》, pp.15-23, 국립국어원.
- 김선철 외(2019), 『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 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pp.7-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국립국어원.
- 도원영(2019),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가능성」, 『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pp.141-167.
- 문영호(2006),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에서 제기되는 우리 글자표기의 북남차이와 단일화 문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5차 회의 자료집』.
- 민현식(2003), 「언어 규범 정책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1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7-71.
- 박갑수(1999),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그 통일 정책」, 『선정어문』 27, 서울대사범대 국어교육과, pp.413-436.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문화어건설이론』, 조선어학전서 2.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조선어학전서 16.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변천사』, 조선어학전서 46.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리론』, 조선어학전서 47.
- 신중진 외(2015),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6), 『2016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9), 『남북 음식, 미술 분야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이봉원(2003), 「남북 표준 발음의 통일 방안」, 『남북한 어문 규범과 그 통일 방안』, 국학자료원.
- 이선웅, 이승희, 정희창(2020), 『한국어 정서법(제3판)』, 사회평론.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임흥빈(1997), 『북한의 문법연구』, 한국문화사.
- 전수태(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정희창(2020), 「남북 어문 규범의 단일성과 다양성 -표준어 맞춤법, 문화어 맞춤법을 중심으로-」, 『국어문』 84, pp.147-166.
- 조남호(2009), 「북한 언어 자료의 구축」,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 차재은(2009), 「남북언어 통합방안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2000), 『남북과학기술용어집-물리학』,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2003ㄱ), 『남북과학기술용어집-수학』,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2003ㄴ), 『남북과학기술용어집-생물학』,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2004), 『남북과학기술용어집-화학공학』,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
- 한용운(2007), 「남북 규범어의 통합 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제4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 한용운(2013), 「남북 사전의 표제어 차이」, 『2013년 남북 언어 소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국립국어원, pp.119-143.
- 한용운(2015ㄱ),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제25권 제2호, 국립국어원, pp.25-44.
- 한용운(2015ㄴ), 「분단 이후의 남북 어휘」, 『현대사광장』 제6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용운(2017), 「남·북·중의 어문 규범 통합 방안 일고(一考)」, 『2017년 남북언어와 중국조선어 소통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 pp.13-31.
- 한용운·박셋별(2019),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사전의 올림말 표기 차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맵씨터.
- 한재영(2011), 「외국의 표준어 정책」, 『새국어생활』 제21권 제4호, 국립국어원, pp.37-58.
- 홍윤표(2005), 「남북 언어의 통합 방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백서.
- 홍종선(2002), 「남북 표준어의 통일화」,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pp.33-54.
-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 <사전류>

- 국가국어사정위원회/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전자사전).
- 국립국어원(2023), <표준국어대사전>(웹사전),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3), <우리말샘>(웹사전), 국립국어원.
-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 사회과학출판사(2017),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 백과사전출판사(2001), 『조선대백과사전』(CD-ROM판).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김선철 과장

국립국어원 최혜원 학예연구관

<사업 참여자>

연구 책임자 한용운(언어정보개발원)

공동 연구원 박상훈(언어정보개발원)

한수미(언어정보개발원)

연구 보조원 강지우(동국대학교)

최수혜(동국대학교)

한지민(동국대학교)

---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4년 08월 31일

발행일: 2024년 08월 31일

인 쇄: 다음애드

---

---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